



여의도연구원

국민행복을 디자인합니다

Vol.2014-11

# 여연브리프

YDI BRIEF

발행일 2014년 12월 24일

## 2014년 전국대학생 실태백서 - 대학생 생활의식 조사 결과 분석 -

### - 목 차 -

I. 조사 개요 .....	1
II. 대학생 실태조사 분석 및 시사점 .....	2
참고자료: 2014년 전국대학생 실태백서 조사결과 .....	10

작성 : 청년정책연구센터  
(02) 369-7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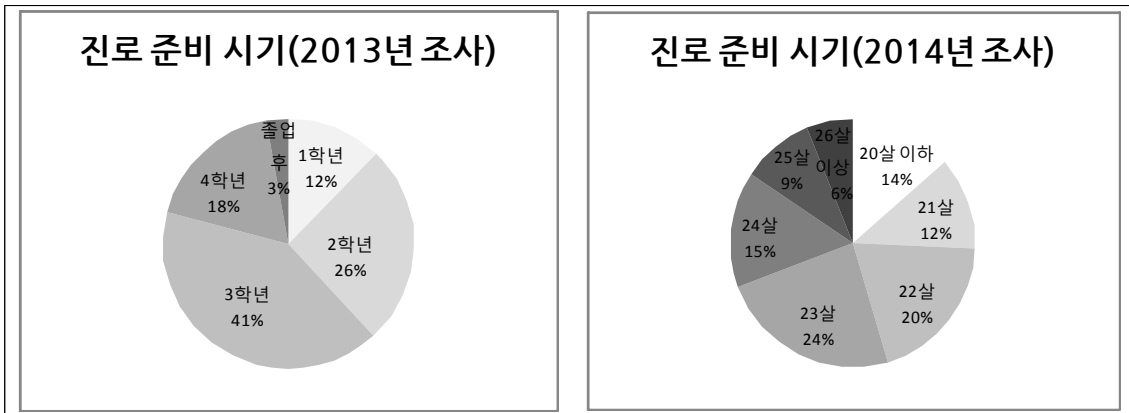
# I.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본 조사는 2014년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조사하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함.
- 조사 대상: 전국 4년제 종합대학 68개 재(휴)학생
- 표본 수 : 5,617명
- 표본 오차: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pm 1.39\%$
- 조사 방법: 대학생 정책자문연구원 237명 이메일·면접 조사
- 조사 항목: 1) 취업·등록금 2) 주거·경제 3) 대학생활·미디어  
4) 대학생 건강 5) 사회 현안
- 조사 기간: 10월 2일 ~ 10월 20일 (19일간)

## Ⅱ. 대학생 실태조사 분석 및 시사점

### 1. 취업

□ 진로 : 약 70%는 23살 이하에 진로준비 시작, 졸업 후 약 60%만 취업하고자 함



#### ○ 졸업 후 진로

- 취업(62.7%), 대학원(14.4%), 모르겠음(11.7%), 유학(3.8%)

☞ 취업난으로 인해 저학년, 저연령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하며 졸업 후에는 대학원, 유학, 창업 등으로 눈을 돌림

□ 취업 관련 정보 습득 : 공적영역 < 사적영역

○ 대학생들은 지인·교수(67.5%), 인터넷 취업사이트(46.2%), 취업박람회 및 기업 입사설명회(13.2%) 순으로 취업관련 정보를 얻고 있음

☞ 공적 영역인 대학의 취업지원센터(20.8%), 고용노동부 워크넷(6.2%)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중복선택)

※ 2013년 전국대학생실태백서는?

지인·교수(42.6%), 인터넷 취업사이트(41.7%), 대학취업지원센터(9.4%), 고용노동부 1.9%, 모름/무응답(0.6%)

□ 취업이 어려운 이유

-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외국어(32.3%), 학벌(24.2%), 대외경력(13.3%), 학점(9.7%), 자기소개서(3.9%)의 이유를 들고 있음

항 목	비율(%)
외국어능력	32.3
학 벌	24.2
대외활동 경력	13.3
학 점	9.7
인 맥	5.6
자기소개서	3.9

- 외국어가 가장 큰 장벽이라고 느낀 지역은 광주·전라(45.1%), 강원(37.2%), 대구·경북(35.8%), 대전·세종·충청(33.3%), 부산·울산·경남(31.4%), 제주(28.8%), 서울·경기·인천(26.7%)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 하는 부분은 학원 수강료(22.5%), 어학 시험 응시료(19%), 자격증 응시료(10.4%), 도서 구입비(1.2%) 순서였으나 따로 지출하는 것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큰 부분(28.5%)을 차지함

※ 여대생 5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해 성형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있다(%)	없다(%)
남성	6.8	92.6
여성	21.4	78.2

□ 취업난 속 학생들이 눈을 돌리는 3대 취업 포인트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취업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6.8%임
- 취업 의향에 대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대전·세종·충청(78.6%), 부산·울산·경남(73.8%), 광주·전라(73.4%), 대구·경북(68.3%), 강원(65.8%), 서울·경기·인천(56.1%), 제주(50.1%)의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낮은 급여(20%), 불안한 고용안정성(16.2%), 열악한 근무환경(15.8%), 기업의 낮은 발전 가능성(8.8%)의 이유를 들고 있음

**Interview:**  
 중소기업하면 무작정 기피하고 봅니다. 급여도 낮을 것 같고, 근무시간도 모르겠고, 도심에 없어 교통도 불편할 것 같고... 정확한 기업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덕성여대 4년 김○○ -

② 해외취업

- 해외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0.5%임
- 해외 취업에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보는 현지의 취업 정보임

지원 정책	비율(%)
현지 취업정보 제공	41.2
현지 생활비 보조	21.6
현지 치안	11.3
계	74.1

- 해외에서 취업 할 의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1학년(74%), 2학년(71.4%), 3학년(68.7%), 4학년(67.5%)순으로 나타남

**Interview:**  
 해외로 취업하고 싶어도 막막합니다.  
 과연 용기를 내어 갈 수 있을지? 가면 뭘 할 수 있을지?  
 학교취업정보센터에는 정보가 별로 없고,  
 K-Move 사이트는 잡코리아와 비교되어 정보가 산재되어 있고...  
 - 한양대 4년 김○○ -

☞ 해외취업을 하고 싶어도(70.5%) 대학이나 정부 지원이 미비해 가지 못함

③ 창업(2013년 전국대학생실태백서)

- 창업할 의향이 있다는 생각이 39%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34.5%)보다 남성(44%)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창업할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로는 적성이 맞아서(50.6%), 높은 수입을 원해서(24.9%), 평생 직업을 갖고 싶어서(10%),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8.3%) 등이 있음
- 반대로 창업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적성이 맞지 않아서(41.8%), 실패의 두려움(33%), 자금 확보의 어려움(21.2%)등의 이유를 들고 있음

**실제 창업자가 느낀 3대 어려움**

1. 교육멘토링 제도
  - 실제 창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겪는 어려움을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모르겠어요
2. 판로개척
  -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수요자들에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기가 어려워요
3. 자금
  - 일정 매출이 없는 기업에는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아요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FGI 中 -

## 2. 등록금

□ 학기당 실제 등록금과 희망 등록금의 큰 차이

	실제 등록금 (장학금전)	희망 등록금
100만원 미만	2.2%	17%
100~200만원 미만	20.8%	53.7%
200~300만원 미만	24.5%	23.5%
300~400만원 미만	36.7%	3.9%
400~500만원 미만	13.6%	0.7%
500~600만원 미만	1.1%	0.4%
600~700만원 미만	0.5%	0.2%
700만원 이상	0.2%	0.3%

□ 대학 등록금은 전적으로 부모님이 부담

- 전액 부모님 부담(54.3%), 부모님+본인(11.5%)으로 대부분 부모님에게 의존하며 전액 본인 부담은 3.5%에 불과함

□ 약 40%의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불만족

- 대체로 만족(43.9%), 대체로 불만족(27.3%), 매우 만족(15.4%), 매우 불만족(13.1%)의 순으로 답함
- 특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공정한 선발기준(17.3%), 좁은 수혜 범위(11.2%)의 이유를 꼽고 있으며 무응답자도 68.4%를 차지함

### 3. 주거

□ 대학생 약 49.6%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고 따로 나와 살고 있으며 주거비용으로 월평균 33만원 소요

- 주거비용: 수도권 38만원, 강원충청 28만원
- 확대되어야 하는 주거 정책으로는 기숙사확충(33.2%), 주거비용 지원(26.4%) 주거 정보시스템 구축(12.8%) 순으로 답함
- 특히 31.8%가 생활비 부담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으며 그 외 식사해결(19.8%),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14.8%), 심리적 외로움(10.7%)의 순으로 답함

### 4. 채무

□ 대학 졸업반 4명 중 1명은 빚쟁이

- '채무가 있다(전체: 18.8%)': 4학년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24.6%)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채무가 있다	12.2	15.6	23.3	24.6



- 채무가 있는 사람 10명 中 7명은 학비(등록금+교재비) 부담이 원인임
  - 서울·인천·경기(76.8%), 대전·세종·충청(67.7%), 부산·울산·경남(66%), 광주·전라(59.1)
- 채무가 있는 사람 10명 中 1명은 이미 1,5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음
  - 100~500만원 미만(40.6%), 500~1,000만원(25.8%), 1,000~1,500만원(13%), 1,500만원(10.2%)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답함

...〈생략〉...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8명 (74.5%)뿐이었다.

대출 규모는 평균 1445만 원이었고 2400만 원 이상의 빚을 진 사람도 여섯 명 중 한 명 정도(17.8%) 됐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3.1%)이 대출을 받은 학기가 받지 않은 학기보다 많았다고 했다.

응답자 중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했다고 답한 사람은 25.2%였다. 이들이 대출금을 모두 갚기까지는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평균 4년이 소요됐다. 대출금이 남은 응답자들은 이를 갚기 위해 매월 평균 22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53.9%는 갚을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연체한 경험이 있었다. ...〈후략〉...

동아일보, <빛으로 쓴 학사모... 대출 절반 1445만원 대출 끼고 사회로>, 2014. 2. 12.

## 5. 아르바이트

### □ 업무 시 부당대우에 대한 정부 지원 미흡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26.9%로 높게 나타났고 그 중 임금 관련 불만이 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인격모독(14.9%), 성희롱·성추행(1.6%) 등으로 나타남(복수응답 2개)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령을 답한 사람을 지역으로 나뉘보면 지역은 광주·전라(55.3%), 대구·경북(51.1%), 대전·충청·세종(40.7%), 강원(40.4%), 부산·울산·경남(34.8%), 서울·경기·인천(29.7%), 제주(20.4%) 순으로 답함
  -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32.5%), 일을 그만둠(30.3%), 고용주와 직접 해결(22%), 정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함(2.3%) 순으로 답함
- ☞ 부당 대우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등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전무한 실정임

## 6. 사회현안

### □ 급속하게 높아지는 포털 뉴스 이용

- 뉴스의 접촉 경로는 포털 사이트가 73%, 방송이 13.9%, 신문이 7.1%를 차지함

※ cf) 2013년 조사 : 포털(53.5%), 방송(30.7%), 신문(12.3%)

### □ 대학의 서열화를 우려하여 60.5%가 대학서열 평가의 반대하고 있음

- 반대의사를 표한 사람 중 남성이 59.1%, 여성이 62.8%를 차지함

### □ 군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인성교육 강화(25.8%), 계급별 생활관 분리(24.7%), 자율 휴가제 실시(12.1%), 평일 면회 허용(9.5%), 공용 핸드폰 도입(6.1%)의 순으로 답함

-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성교육의 강화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음: 1학년(18.4%), 2학년(23.4%), 3학년(29.9%), 4학년(31.9%)
- 계급별 생활관 분리를 답한 사람: 1학년(34%), 2학년(24.5%), 3학년(22.7%), 4학년(18.2%)

### □ 단통법 도입에 대해서는 61.7%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매우 긍정적(3.0%), 대체로 긍정적(16.6%), 대체로 부정적(25.3%), 매우 부정적(36.4%), 잘 모르겠다(18.2%)

### □ 담배값 인상은 68.3%가 찬성을 하였으며 이 중 21.4%가 9,000원 이상이라고 답함

- 인상필요 없음(31.3%), 1000원(14.1%), 2000원(10.7%), 3000원(8.5%), 4000원(3.4%), 5000원(6.4%), 6000원(0.9%), 7000원(1.2%), 8000원(1.8%)

### □ 인터넷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87.3%가 응답함

- 매우 필요함(51%), 대체로 필요함(36.3%), 대체로 불필요함(6.6%), 매우 불필요함(2.8%)

## 7. 정책 제언

### □ 취업

- 중소기업·해외취업·창업에 대한 정보가 산재&부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청년(대학생) 전용 취업 포털시스템 구축 필요
- 미국의 노동부 산하 고용사무소(Office of Labor-Management Standards (OLMS)는 임금, 경력사항과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기업의 자산가치, 연봉 규모까지 제공하고 있음

### □ 등록금

- 실제 등록금과 희망 등록금간 격차 완화를 위한 등록금 수혜 범위를 넓혀 실질적 등록금 인하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야 함

### □ 주거

- 서울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0%미만이므로 대학 기숙사의 확충과 더불어 대학생 전용 주택바우처 도입 검토
- 現 대학생 주거안정 제도로는 ‘전세임대제도’와 ‘공공기숙사’ 건립이 있음. 그러나 공공기숙사의 ‘수용인원 한계’ 및 전세임대제도의 ‘복잡절차, 주택 소유주의 월세 선호, 까다로운 주택조건’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

### □ 채무

- 채무 대부분이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이 되고 있으므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現 한국장학재단 2.9%) 이자율 인하가 필요

### □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시 임금 체불 관련 불만이 가장 크지만 법적 지식 부족, 갑을 관계 등에 의해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전용 법률상담 전화 개설 및 적극 홍보 정책이 필요

## 참고자료: 2014년 전국대학생 실태백서 조사결과

## □ 응답자 특성

		사례 수	비율(%)
[전체]		5617	100.0
성별	남성	3403	60.6
	여성	2214	39.4
대학유형	국공립	2250	40.1
	사립	3363	59.9
	무응답	4	0.1
전공	인문 계열	1063	18.9
	사회 계열	1369	24.4
	상경 계열	841	15.0
	자연 계열	656	11.7
	공학 계열	1157	20.6
	예체능 계열	279	5.0
	기타	238	4.2
	무응답	13	0.2
소재지	서울/경기/인천	2098	37.4
	강원	296	5.3
	대전/세종/충청	1062	18.9
	광주/전라	622	11.1
	대구/경북	635	11.3
	부산/울산/경남	858	15.3
	제주	46	0.8
주민등록지	서울/경기/인천	2465	43.9
	강원	201	3.6
	대전/세종/충청	611	10.9
	광주/전라	600	10.7
	대구/경북	730	13.0
	부산/울산/경남	919	16.4
	제주	89	1.6
연령	19세	141	2.5
	20세	1017	18.1
	21세	857	15.3
	22세	739	13.2
	23세	995	17.7
	24세	778	13.9
	25세	502	8.9
	26세	332	5.9
	27세	138	2.4
	28세	69	1.2
	29세	34	0.6
	30세	2	0.0
	무응답	12	0.2
학년	1학년	1330	23.7
	2학년	1620	28.8
	3학년	1235	22.0
	4학년	1432	25.5

## □ 조사 대학

대학 소재지	대학명
서울/경기/인천 (39개 대학)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인교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신한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경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국철도대, 한양대, 홍익대
강원 (4개 대학)	강원대, 경동대, 춘천교대, 한림대
대전/세종/충청 (9개 대학)	선문대, 순천향대, 영동대, 충북대, 충주대, 청주대, 한국전통문화대, 한남대, 카이스트
광주/전라 (5대 대학)	목포대, 목포해양대, 원광대, 전북대, 조선대
대구/경북 (4개 대학)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영남대
부산/울산/경남 (6개 대학)	경남대, 경성대,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울산과기대
제주 (1개 대학)	제주대
총 68개 대학	

## □ 조사결과

### 인적사항

####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60.6%) ② 여성 (39.4%)

#### 2. 귀하가 재학 중인 대학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 (40.1%) ② 사립 (59.9%)

#### 3. 귀하의 대학 전공은 무엇입니까?

- ① 인문 계열 (18.9%) ② 사회 계열 (24.4%) ③ 상경 계열 (15.0%)  
④ 자연 계열 (11.7%) ⑤ 공학 계열 (20.6%) ⑥ 예체능 계열 (5.0%) ⑦ 기타 (4.2%)

#### 4. 귀하가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경기/인천 (37.4%) ② 강원 (5.3%) ③ 대전/세종/충청 (18.9%) ④ 광주/전라 (11.1%)  
⑤ 대구/경북 (11.3%) ⑥ 부산/울산/경남 (15.3%) ⑦ 제주 (0.8%)

#### 5. 귀하의 주민등록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경기/인천 (43.9%) ② 강원 (3.6%) ③ 대전/세종/충청 (10.9%) ④ 광주/전라 (10.7%)  
⑤ 대구/경북 (13.0%) ⑥ 부산/울산/경남 (16.4%) ⑦ 제주 (1.6%)

#### 6.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 ① 19세 (2.5%) ② 20세 (18.1%) ③ 21세 (15.3%)  
④ 22세 (13.2%) ⑤ 23세 (17.7%) ⑥ 24세 (13.9%)  
⑦ 25세 (8.9%) ⑧ 26세 (5.9%) ⑨ 27세 (2.4%)  
⑩ 28세 (1.2%) ⑪ 29세 (0.6%)

#### 7. 귀하는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23.7%) ② 2학년 (28.8%) ③ 3학년 (22.0%) ④ 4학년 (25.5%)

## I. 취업 · 등록금

1. 귀하는 대학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취업 (62.7%)** ② 대학원 진학 (14.4%) ③ 창업 (3.6%) ④ 유학 (3.8%) ⑤ 기타 (3.3%)  
⑥ 아직 잘 모르겠음 (11.7%)

2. 귀하는 언제부터 본격적인 진로준비를 시작했습니까?(혹은 하실 계획입니까?)

- ① 20살 이하 (13.6%) ② 21살 (12.0%) ③ 22살 (19.8%) ④ **23살 (23.8%)** ⑤ 24살 (15.0%) ⑥ 25살 (9.5%) ⑦ 26살 (3.8%) ⑧ 27살 (1.4%) ⑨ 28살 (0.6%) ⑩ 29살 이상 (0.4%)

3. 귀하는 취업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복수응답 2개 선택)

- ① **친구·지인·교수 (67.5%)** ②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20.8%) ③ 기업 입사설명회 (7.3%)  
④ 취업박람회 (5.9%) ⑤ 정부기관 사이트 (위크넷) (6.2%)  
⑥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등) (22.0%)  
⑦ 인터넷 카페 (닥치고 취업, 취업뽕개기, 스펙업 등) (24.2%) ⑧ 기타 (15.5%)

4. 다음 중 귀하가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꿈, 적성과의 일치 여부 (43.3%)** ② 급여 (21.2%) ③ 고용 안정성 (16.9%)  
④ 회사의 인지도·규모 (3.6%) ⑤ 회사의 발전 가능성 (3.0%) ⑥ 회사의 위치 (1.0%)  
⑦ 사내 복지제도 (2.9%) ⑧ 사내 조직문화 (1.1%) ⑨ 입사 가능성 (2.7%) ⑩ 기타 (1.4%)

5. 귀하가 생각하는 대졸 신입사원의 적정 연봉은 얼마입니까?

- ① 2000만 원 미만 (3.2%) ② 2000만 원 이상~2500만 원 미만 (29.1%)  
③ **25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34.9%)** ④ 3000만 원 이상~3500만 원 미만 (18.4%)  
⑤ 35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 (9.2%) ⑥ 4000만 원 이상 (4.7%)

6. 귀하가 느끼는 가장 높은 취업 장벽은 무엇입니까?

- ① 학벌 (24.2%) ② 학점 (9.7%) ③ **외국어 능력(영어, 중국어 등) (32.3%)**  
④ 대외활동 경력(공모전, 인턴, 해외연수 등) (13.3%) ⑤ 자격증 (3.7%)  
⑥ 자기소개서(글쓰기 능력) (3.9%) ⑦ 인맥 (5.6%) ⑧ 외모 (0.6%) ⑨ 기타 (4.9%)

7. 귀하가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어학시험 응시료 (19.0%) ② 자격증 시험 응시료 (10.4%) ③ 학원 수강료 (22.5%)  
④ 도서 구입비 (7.2%) ⑤ 면접 준비(메이크업, 정장 구매 등) (2.2%) ⑥ 어학 연수비 (4.6%)  
⑦ 교통비 (1.2%) ⑧ 기타 (3.1%) ⑨ **따로 지출하는 것이 없다 (28.5%)**

8. 귀하가 취업을 위해 소비하는 월 평균 금액은 얼마입니까?

- ① **0~10만 원 미만 (54.6%)** ② 10만 원~20만 원 미만 (21.9%) ③ 20만 원~30만 원 미만 (11.2%)  
④ 30만 원~40만 원 미만 (4.7%) ⑤ 40만 원~50만 원 미만 (3.3%) ⑥ 50만 원~60만 원 미만 (1.2%)  
⑦ 60만 원~70만 원 미만 (0.4%) ⑧ 70만 원~80만 원 미만 (0.6%) ⑨ 80만 원~90만 원 미만 (0.1%)  
⑩ 90만 원~100만 원 미만 (0.1%) ⑪ 100만 원 이상 (0.7%)

## 9. 귀하는 취업을 위해 성형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2.6%) ② 없다 (86.9%)

## 9-1. (9번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성형을 위해 얼마까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까?

- ① 100만 원 미만 (13.9%) ② 100만 원~300만 원 미만 (38.2%) ③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3.3%)  
④ 500만 원~700만 원 미만 (4.9%) ⑤ 700만 원~900만 원 미만 (1.1%) ⑥ 비용은 상관없다 (15.4%)

## 10. 귀하는 향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66.8%) ② 없다 (32.9%)

## 10-1. (10번의 ②번 응답자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낮은 급여 (20.0%) ② 열악한 근무환경 (15.8%) ③ 불안한 고용 안정성 (16.2%)  
④ 기업의 낮은 발전 가능성 (8.8%) ⑤ 취업 정보 부족 (3.9%) ⑥ 사회적 편견 (9.0%) ⑦ 기타 (21.3%)

## 11. 귀하는 해외에서 취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70.5%) ② 없다 (29.2%)

## 12. 귀하는 해외 취업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현지 취업정보 제공 (41.2%) ② 현지 생활비 보조 (21.6%) ③ 현지 치안 보호 (11.3%)  
④ 외국어 교육 지원 (10.6%) ⑤ 직업 교육 지원 (7.1%) ⑥ 성공 장려금 제공 (3.2%)  
⑦ 기타 (3.1%)

## 13. 귀하의 한 학기 등록금은 얼마입니까?(장학금 반영 前)

- ① 100만 원 이하 (2.2%) ② 100만 원~200만 원 (20.8%) ③ 200만 원~300만 원 (24.5%)  
④ 300만 원~400만 원 (36.7%) ⑤ 400만 원~500만 원 (13.6%) ⑥ 500만 원~600만 원 (1.1%)  
⑦ 600만 원~700만 원 (0.5%) ⑧ 700만 원 이상 (0.2%)

## 14. 귀하가 생각하는 대학 등록금의 적정 액수는 얼마입니까?

- ① 100만 원 미만 (17.0%) ② 100만 원~200만 원 미만 (53.7%)  
③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3.5%) ④ 300만 원~400만 원 미만 (3.9%)  
⑤ 400만 원~500만 원 미만 (0.7%) ⑥ 500만 원~600만 원 미만 (0.4%)  
⑦ 600만 원~700만 원 미만 (0.2%) ⑧ 700만 원 이상 (0.3%)

## 15. 귀하는 대학 등록금을 주로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일부 장학금 제외)

- ① 전액 부모님 부담 (54.3%) ② 전액 본인 부담 (3.5%) ③ 부모님 + 본인 부담 (11.5%)  
④ 학자금 대출 (9.6%) ⑤ 전액 장학금 부담 (17.5%) ⑥ 기타 (3.1%)

## 16. 귀하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15.4%) ② 대체로 만족 (43.9%) ③ 대체로 불만족 (27.3%)  
④ 매우 불만족 (13.1%)



16-1. (16번의 ③~④번 응답자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불공정한 선발 기준 (17.3%) ② 복잡한 신청 절차 (1.1%) ③ 좁은 수혜 범위 (11.2%)  
④ 낮은 장학금 액수 (1.0%) ⑤ 장학금 지급의 지연 (0.1%) ⑥ 기타 (0.9%)

17. 귀하는 세금인상을 통한 정부의 등록금 지원강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긍정적 (6.5%) ② 대체로 긍정적 (30.3%) ③ 대체로 부정적 (33.0%)  
④ 매우 부정적 (15.2%) ⑤ 잘 모르겠다 (13.4%)

## II. 주거 · 경제

18.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집(통학) (50.4%) ② 자취 · 하숙 (26.4%) ③ 대학기숙사 (21.6%) ④ 지역운영학사 (0.9%)  
⑤ 기타 (0.6%)

18-1. (18번의 ①번 응답자 제외)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주거비용(월세 등)에 대한 부담 (14.8%) ② 생활비 부담 (31.8%) ③ 치안 문제 (1.9%)  
④ 식사 해결 (19.8%) ⑤ 심리적 외로움 (10.7%) ⑥ 기타 (12.7%)

18-2. (18번의 ①번 응답자 제외) 귀하의 주거비용은 주로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 ① 전액 부모님 부담 (60.3%) ② 전액 본인 부담 (8.9%) ③ 부모님 + 본인 부담 (23.2%)  
④ 기타 (2.8%)

18-3. (18번의 ①번 응답자 제외) 귀하의 월 평균 주거비용(월세 기준)은 얼마입니까?

- ① 30만 원 미만 (31.8%) ② 30만 원~40만 원 미만 (30.4%) ③ 40만 원~50만 원 미만 (13.6%)  
④ 50만 원~60만 원 미만 (4.4%) ⑤ 60만 원~70만 원 미만 (2.1%)  
⑥ 70만 원~80만 원 미만 (0.6%) ⑦ 80만 원~90만 원 미만 (0.2%)  
⑧ 90만 원~100만 원 미만 (0.5%) ⑨ 100만 원 이상 (1.5%)

19. 귀하는 정부 또는 학교가 지원하는 주거정책 · 제도 중 어떠한 것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기숙사 확충 (33.2%) ② 주거비용 지원 (26.4%) ③ 보증금 대출 제도 (5.6%)  
④ 월세 상한 제도 및 담합 철폐 (9.6%) ⑤ 임대주택 확대 (6.5%)  
⑥ 대학생 주거정보시스템 구축 (12.8%) ⑦ 기타 (4.7%)

20. 귀하의 한 달 평균 소비액은 얼마입니까?(주거비용 제외)

- ① 20만 원 미만 (6.7%) ② 20만 원~30만 원 미만 (25.3%) ③ 30만 원~40만 원 미만 (33.6%)  
④ 40만 원~50만 원 미만 (18.3%) ⑤ 50만 원~60만 원 미만 (8.8%)  
⑥ 60만 원~70만 원 미만 (3.3%) ⑦ 70만 원 이상 (3.3%)

21. 귀하는 현재 본인명의의 채무(학자금 대출, 개인 신용대출, 공과금 등)가 있습니까?

- ① 예 (18.8%) ② 아니요 (81.0%)

21-1. (21번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현재 채무 금액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 원 미만 (9.0%) ② 100~500만 원 미만 (40.6%) ③ 500~1,000만 원 미만 (25.8%)  
④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3.0%) ⑤ 1,500만 원 이상 (10.2%)

21-2. (21번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주된 채무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생활비 (14.4%) ② 학비(등록금 + 교재비 등) (68.0%) ③ 주거비 (2.7%) ④ 여가·문화비 (1.5%)  
⑤ 기타 (2.5%)

22. 귀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26.9%) ② 없다 (58.7%) ③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13.8%)

22-1. (22번의 ①번 응답자만) 어떤 종류의 부당한 처우입니까?(복수응답 2개)

- 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령 (38.7%) ② 임금 지급 지연 (24.3%)  
③ 야간·휴일수당 미지급 (15.6%) ④ 인격적 모독 (14.9%) ⑤ 성희롱·성추행 (1.6%)  
⑥ 근로 계약서 미작성 (16.2%) ⑦ 정해진 일과 상관없는 업무지시 (14.2%) ⑧ 휴식시간 미보장 (13.9%) ⑨ 부당 해고 (3.7%) ⑩ 기타 (5.5%)

22-2. (22번의 ①번 응답자만)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 ① 일을 그만둠 (30.3%) ② 고용주와 직접 해결 (22.0%)  
③ 정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신고, 상담, 소송) (2.3%) ④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 (32.5%)  
⑤ 기타 (3.5%)

### Ⅲ. 대학생활 · 미디어

23. 귀하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전공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학 입학 시 합격 가능성 (24.2%) ② 본인의 적성·흥미와 일치 (48.8%)  
③ 취업에 유리해서 (13.6%) ④ 주변 지인들의 영향 (6.7%) ⑤ 기타 (6.3%)

24. 귀하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전공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11.2%) ② 대체로 만족 (59.3%) ③ 대체로 불만족 (25.3%)  
④ 매우 불만족 (4.0%)

24-1. (24번의 ③~④번 응답자만)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공 내용이 어려워서 (14.5%) ② 전공 내용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35.1%)  
③ 적성·흥미에 맞지 않아서 (32.4%) ④ 취업에 유리하지 않아서 (10.8%)  
⑤ 학비가 비싸서 (2.2%) ⑥ 기타 (2.6%)

25. 귀하는 휴학 경험 혹은 계획이 있습니까?(군 휴학 제외)

- ① 있다 (47.4%) ② 없다 (52.3%)

25-1. (25번의 ①번 응답자만) 휴학을 한 경험 혹은 계획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 준비(자격증, 어학공부, 대외활동 등) (31.7%) ② 등록금·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5.5%)  
③ 해외 유학을 가기 위해서 (15.5%) ④ 고시·공무원 시험 준비 (11.0%)  
⑤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서 (1.9%) ⑥ 휴식이 필요해서 (23.1%) ⑦ 기타 (9.7%)

26. 귀하는 대학생할 동안 이른바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발적 아웃사이더 : 주로 대학교에서 쓰이는 용어로, 학점관리, 대외활동, 스펙관리, 취업준비 등에 매진하면서 스스로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 ① 있다 (21.5%) ② 없다 (78.3%)

26-1. (26번의 ①번 응답자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점 관리에 바빠서 (20.0%) ② 취업 준비에 바빠서 (14.8%)  
③ 대외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13.4%) ④ 대학 내 인간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31.2%)  
⑤ 기타 (18.6%)

27. 귀하는 정부·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대학 순위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찬성 (38.9%) ② 반대 (60.5%)

28. 귀하는 하루 평균 몇 번 SNS(페이스북·트위터 등)를 확인합니까?

- ① 하루에 한 번 이하 (11.2%) ② 12시간에 한 번 (6.1%) ③ 6시간에 한 번 (11.1%)  
④ 3시간에 한 번 (22.1%) ⑤ 1시간에 한 번 (19.5%) ⑥ 30분에 한 번 (13.4%)  
⑦ 10분에 한 번 이상 (5.6%) ⑧ SNS를 사용하지 않음 (10.6%)

29. 귀하가 생각하는 SNS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2개)

- ① 개인 정보 유출 (31.6%) ② 음란·허위사실·불건전 정보(찌라시, 스팸 등)의 확산 (35.2%)  
③ SNS 중독 (55.4%) ④ 피상적인 인간관계의 형성 (33.0%) ⑤ 기타 (6.8%) ⑥ 없음 (2.3%)

30.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는 무엇입니까?

- ① 카카오톡 (94.2%) ② 라인 (0.5%) ③ 마이피플 (0.7%) ④ 네이트온 (0.2%)  
⑤ 왓츠앱 (0.1%) ⑥ 페이스북 메신저 (1.6%) ⑦ 텔레그램 (0.4%) ⑧ 기타 (0.4%)

31. 귀하가 생각하는 모바일 메신저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2개)

- ① 개인 정보 유출 (24.2%) ② 음란·허위사실·불건전 정보(찌라시, 스팸 등)의 확산 (17.1%)  
③ 신중 모바일 피해(스미싱 등) 증가 (22.0%) ④ 잡은 채팅·알림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 (61.0%)  
⑤ 피상적인 인간관계의 형성 (24.6%) ⑥ 기타 (7.6%) ⑦ 없음 (5.4%)

32. 귀하는 뉴스를 주로 어디에서 접합니까?

- ① 포털사이트 (73.0%) ② 방송 (13.9%) ③ 신문 (7.1%) ④ 라디오 (0.8%) ⑤ 기타 (4.2%)

## IV. 개인 건강

33. 귀하는 하루 평균 몇 끼를 먹습니까?

- ① 한 끼 (2.3%) ② 두 끼 (54.0%) ③ 세 끼 (40.1%) ④ 네 끼 이상 (3.5%)

34. 귀하가 식사를 거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챙겨 먹기 번거로워서 (31.6%) ② 시간이 부족해서 (23.5%) ③ 경제적 부담 때문에 (2.9%)  
④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1.0%) ⑤ 다이어트를 위해서 (5.5%)  
⑥ 한 두 끼로도 충분해서 (11.0%) ⑦ 기타 (1.4%) ⑧ 거르지 않음 (21.6%)

35. 귀하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① 4시간 미만 (1.9%) ② 4~5시간 (22.0%) ③ 6~7시간 (60.6%) ④ 8~9시간 (14.3%) ⑤ 10시간 이상 (0.8%)

36. 귀하는 현재 본인의 평균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9.9%) ② 대체로 충분하다 (49.5%) ③ 대체로 충분하지 않다 (33.9%)  
④ 매우 충분하지 않다 (6.6%)

36-1. (36번의 ③~④번 응답자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 과제 및 시험 (7.1%) ② 취업 준비 (공모전, 봉사활동, 인턴활동, 어학공부, 자격증 등) (1.8%)  
③ 아르바이트 (0.5%) ④ 음주 (0.6%) ⑤ 사람들과의 만남 (1.3%) ⑥ TV 시청 (0.2%)  
⑦ 스마트폰 이용 (1.0%) ⑧ PC 이용 (0.5%) ⑨ 개인적인 고민 (0.9%) ⑩ 기타 (1.5%)

37. 귀하의 평균 음주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음주하지 않음 (11.0%) ② 한 달에 1번 이하 (22.2%) ③ 이주일에 1번 정도 (25.3%)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30.2%) ⑤ 일주일에 3번 이상 (9.5%) ⑥ 일주일에 5번 이상 (1.6%)

37-1. (37번의 ①번 응답자 제외) 귀하의 평균 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1회 술자리 시, '소주' 기준)

- ① 반 병 미만 (9.9%) ② 반 병~1병 미만 (25.0%) ③ 1병~1병 반 미만 (27.3%)  
④ 1병 반~2병 미만 (18.9%) ⑤ 2병~2병 반 미만 (9.3%) ⑥ 2병 반~3병 미만 (4.4%)  
⑦ 3병 이상 (1.7%)

38. 귀하는 흡연을 합니까?

- ① 예 (21.4%) ② 아니요 (78.4%)

38-1. (38번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반 갑 미만 (31.2%) ② 반 갑~한 갑 미만 (51.0%) ③ 한 갑~한 갑 반 미만 (14.2%)  
④ 한 갑 반~두 갑 미만 (1.4%) ⑤ 두 갑 이상 (0.3%)

39. 귀하가 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음주 (6.0%) ② 흡연 (3.9%) ③ 운동 (14.1%) ④ 수면 (11.5%) ⑤ 게임 (7.1%)  
⑥ 문화 생활(영화, 공연, 음악 감상 등) (12.4%) ⑦ 사람들과의 만남 (19.8%)  
⑧ 맛있는 음식 먹기 (9.2%) ⑨ 독서 (1.3%) ⑩ 여행 (2.1%) ⑪ 기타 (2.0%)  
⑫ 특별한 방법 없음 (5.0%)

## V. 사회 현안

40. 귀하는 군 구타·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공용 핸드폰 도입 (6.1%) ② 계급별 생활관 분리 (24.7%) ③ 평일 면회 허용 (9.5%)  
④ 자율 휴가 선택 제도 도입 (12.1%) ⑤ 인성교육 강화 (25.8%) ⑥ 기타 (20.7%)

41. 귀하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등록번호 개편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

- ① 매우 필요함 (14.4%) ② 대체로 필요함 (33.5%) ③ 대체로 불필요함 (24.8%)  
④ 매우 불필요함 (10.7%) ⑤ 잘 모르겠다 (16.2%)

42. 귀하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단말기 보조금 공시, 보조금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자율을 해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과 보조금 지원 구조를 투명화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 ① 매우 긍정적 (3.0%) ② 대체로 긍정적 (16.6%) ③ 대체로 부정적 (25.3%) ④ 매우 부정적 (36.4%) ⑤ 잘 모르겠다 (18.2%)

43. 귀하는 담뱃값 인상폭으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인상 필요 없음 (31.3%) ② 1,000원 (14.1%) ③ 2,000원 (10.7%) ④ 3,000원 (8.5%) ⑤ 4,000원 (3.4%) ⑥ 5,000원 (6.4%) ⑦ 6,000원 (0.9%) ⑧ 7,000원 (1.2%) ⑨ 8,000원 (1.8%) ⑩ 9,000원 이상 (21.4%)

44. 귀하는 인터넷·SNS·모바일 메신저 상의 허위사실 유포, 악플 게재, 명예훼손 처벌을 위한 관련 법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필요함 (51.0%) ② 대체로 필요함 (36.3%) ③ 대체로 불필요함 (6.6%)  
④ 매우 불필요함 (2.8%) ⑤ 잘 모르겠다 (3.1%)

여의도연구원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연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연브리프」의 전문은 [www.ydi.or.kr](http://www.ydi.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산업진흥회 신관 3층  
전화: (02) 2070-3300 팩스: (02) 2070-3331 (우 150-729)